기획재정부	보도자료

보도일시	배 포 시	배포일시	2020. 12. 7.(월) 10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미래전략과장 최재혁 (044-215-4910)	담당자	박은정 서기관 (044-215-4911) eunjungpark@korea.kr
			김민진 사무관 (044-215-4920) minjin11@korea.kr
	기획재정부 기후환경정책팀장 류승수 (044-215-4970)		최형석 사무관 (044-215-4975) hyungchoi@korea.kr
	환경부 기후전략과장 오일영(044-201-6640)		고덕규 서기관(044-201-6647) kdk0518@korea.kr
	산업부 온실가스감팀장 성시내(044-203-5135)		김은하 사무관(044-203-5135) ehkim911@motie.go.kr
	과기부 기후환경대응팀장 한우진(044-202-4511)		손효진 사무관(044-202-4543) sonhj@korea.kr
	국조실 기후변화대응과장 전원혁(044-200-2890)		김민지 사무관(044-200-2892) kristi90@korea.kr

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 발표

□ 정부는 12.7(월)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「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」를 개최하여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을 확정·발표하였습니다.

※ 자세한 내용은 붙임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(붙임) 1. 부총리 브리핑 발표문
2. 환경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
3.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
4.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※ (별첨)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

넓게 듣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OPEN
출처표시
상업용금지
공공누리
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붙임 1 **부총리 브리핑 발표문**

※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,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

오늘 경제중대본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
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.

1. 탄소중립 국내 여건 : 매우 도전적 과제

정부는 지난 10.28일 **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계획**을 처음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대해 "왜 탄소중립인가?"
"제조업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가 가능한가?"
"준비는 되어 있는가?" 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.

이러한 질문에 답변 드리고
왜 탄소중립이 불가피한 지, 탄소중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지 그리고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무엇인지 등 정부의 향후계획을
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

정부도 **2050 탄소중립 실현이 매우 도전적인 과제**임을
잘 알고 있습니다.

① 먼저 우리 **제조업 비중**('19년)**은 28.4%**로 16.4%인 EU, 11.0%인 미국보다 높습니다.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던 **철강,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**이 **탄소 다배출 업종**입니다.

② **에너지원 구성** 측면에서도 우리는 **석탄발전 비중**('19)이 **40.4%**로 미국 24%, 일본 32%, 독일 30% 등 주요국보다 높은 상황입니다.

③ 또한, 주요 선진국들보다 후발주자로 산업화가 되어
온실가스 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고,
이행과정에서 **산업경쟁력 약화, 일자리 감소** 등
부담이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.

2. 그럼에도 불구하고, 왜 탄소중립인가?

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,

우리 경제·사회의 생존을 위해
2050 탄소중립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.

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사회에서 나서지 못하고 특히
글로벌 경제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장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.

① 먼저 코로나19 발생 이후 **기후문제 심각성이 더 부각**되면서
EU, 중국(9.22), 일본(10.26)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
미국의 바이든 당선자도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
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며
이제 **탄소중립은 글로벌 新패러다임으로 대두**되었습니다.

이제 기후변화 문제, 탄소중립은 "**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**"이고,
"**미래가 아닌 당장 눈앞의 현실의 이야기**"가 된 것입니다.
더 이상 미룰 수 없는, **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절박한 과제**인 것입니다.

② 그리고 각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
글로벌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경제질서가 확 변화하고 있습니다.

EU와 미국은 **탄소국경세 도입을 논의**중이고,
특히 EU는 **자동차 배출규제 상향**, **플라스틱세 신설**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글로벌 기업과 금융사들이 납품대상기업과 금융투자 대상을
친환경기업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.

수출주도형 경제로 성장해온 우리 산업구조 특성상
미온적으로 대응시 **투자 및 글로벌 소싱 기회의 제한이 우려됩니다.**
새로운 국제질서 대응을 위한 우리 변화도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.

③ 또한 재생에너지, 수소 및 2차 전지시장 등
글로벌 **친환경시장의 급성장**이 진행되고 있고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.

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**자국 경쟁력 확보** 및 **새시장 선점**을 위해
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중이며,
우리도 능동적,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
새로운 시장으로의 출발이 뒤쳐질 우려가 있습니다.

지금 **탄소중립이라는 大(대)전환의 시대**를 맞아
탄소중립 채택이 **"선택이 아닌 필수"**가 된 만큼
이제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적응적(Adaptive) 감축에서
신 경제사회구조 구축이라는 능동적(Proactive) 대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

즉 '전향적, 선제적, 능동적 접근'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.

3. 탄소중립 추진전략

이제 **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**의 세부내용에 대해
말씀드리겠습니다.

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**新패러다임 전환 기로에서**
능동적 대응을 통해 **탄소중립과 경제성장,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**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습니다.

이에 무엇보다 **우리 경제·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,**
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 왔으며,
이러한 측면에서 '**경제구조 저탄소화,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,**
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전환' 이라는 **3대 정책방향**과
'**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**'라는 소위 **「3+1」의 전략 틀**을 마련하였습니다.

[3-1 경제구조의 저탄소화]

먼저 첫 번째로 **경제구조 모든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**하겠습니다.

① **가장 먼저 탄소중립실현의 핵심인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**해 나가겠습니다. **에너지 주공급원**을 **화석연료에서**
안전하고 깨끗한 **신·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**해 나가겠습니다.

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**송배전망을 확충**하고
지역생산·지역소비의 **분산형 에너지시스템을 확산**해 나가겠습니다.

에너지 수급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른
전력수요 전망을 기반으로 **차질없이 준비**해 나가겠습니다.
이와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이 추가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② 또한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**고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**도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철강,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의 **대규모 기술개발 지원**은 물론 고탄소 중소기업 대상 **1: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**에 이르기 까지 **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**에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.

③ **수송 건물분야 저탄소화도 매우 중요**합니다.
먼저 **미래모빌리티가 중심**이 되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.

친환경차의 **가격·충전·수요 3대 혁신**을 통해
수소·전기차 생산·보급을 가장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.
전국 **2천만 세대에 전기차 충전기가 보급**되어 있고,
도심·거점별 수소 충전소가 일상이 되는 **미래상**을 구현해 내겠습니다.

아울러, 건물 등 **도시·국토의 저탄소화**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습니다.
신규 건축물의 **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**는 물론
국토계획 수립시에도 **탄소중립을 고려**하며,
산림,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**탄소흡수기능**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[3-2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]

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**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를 조성**하겠습니다.

① 먼저 **저탄소 신유망산업을 적극 육성**하는 차원에서
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**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**를 박차를 가하고
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**그린수소를 적극 활성화**하여
'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% 이상을 그린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.

또한 이산화탄소 포집(CCUS)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화하는
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.

② 또한 **산업육성을 넘어 저탄소 혁신생태계 저변구축**도 매우 중요합니다.
친환경·저탄소·에너지산업 분야 **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**을 발굴
집중 지원함으로써 **그린 예비유니콘으로 적극 육성**해 나가겠습니다.

아울러,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**규제자유특구도 더 확대**하여
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.

③ 한편 **순환경제 활성화**를 통해 **지속가능한 생산·소비를 위한 체계**도
구축해 나가겠습니다.

철강산업 분야 현재 50% 수준인 철스크랩 이용목표를 상향조정 하는 등
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강화하고,
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**제품의 全 과정에서 순환경제를 실현**해 나겠습니다.

[3-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(公正)전환]

마지막 세 번째 정책방향은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
그 어떤 개인·기업·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.

① 먼저 **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하는 방안**을 적극 병행하겠습니다.
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
구조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&D, M&A 등을 통해
대체·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**맞춤형 재취업 지원도**
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
② 한편 탄소중립 실현은 **지역사회 참여 없이는 불가능**합니다.

이미 81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습니다만
정부는 지역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
특히 지자체 책임 하에 **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**되도록
제도적 기반도 적극 정비하겠습니다

③ 이와 함께 **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 노력도**
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.

[3-4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]

이러한 3대 핵심정책 방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
「3+1」전략의 틀의 마지막인 '**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**'입니다.
탄소중립은 30여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
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
이를 위해 정부는 **기술개발(R&D), 재정지원, 녹색금융 등 다양한 제도에 있어**
탄소중립 친화적 제도설계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① 먼저 **재정운용**에 있어 **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**될 수 있도록
하겠습니다. (가칭) **"기후대응기금"을 신규 조성**하고
세제·부담금·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수단들을
탄소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할 예정입니다.

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**제도개편방안 검토** 및 **시너지 제고방안**을
마련하고, **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**도 검토하겠습니다.

② **녹색금융의 경우** 정책금융기관의 **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**하고
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.

아울러 기업의 환경관련 공시의무 단계적 확대 등

금융시장 인프라 정비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.

③ 한편 **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과정에서**
기술개발 R&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
CCUS, 에너지효율 극대화, 태양전지 등
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최대한 집중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4. 추진체계 및 향후계획

이러한 탄소중립전략의 핵심은 역시 "**준비와 실행**"입니다
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
정부는 **대통령 직속으로**
민관합동 "2050 탄소중립위원회"를 설치할 예정입니다.

이와 함께 **속도감 있고 효율적인 정책** 추진을 위해
탄소중립 관련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**산업부에 에너지차관제 신설**을
추진하는 등 **정부부처 탄소중립 실행역량도 가일층 강화**하겠습니다.

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은
획기적인 변화이고 또 장기간 진행되는 아젠다입니다.
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**국민, 특히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소통**을 거쳐
단계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이번에 분야별 **주요 정책캘린더를 제시**하였습니다.
향후 **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– 핵심정책 추진전략 수립 – 국가계획 반영** 등
질서있게 정책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.

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아
연내에 '장기 저탄소발전전략 LEDS'를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

그리고 **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** NDC도 **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상향하여 제출**할 것이며,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**이번 정부 임기안에 감축목표가 상향조정**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.
이와 관련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추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5. 마무리

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

2050 탄소중립은 **제조업 중심 산업구조, 높은 화석연료 비중,**
높은 무역의존도 등 우리여건 감안시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입니다.

그러나 글로벌 탄소중립대열에 선제적, 선도적 대응을 통해
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, 우리 경제의 미래경쟁력 및 신시장 확보,
그리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그 **준비와 기반을 마련**해 나가는 것이
우리에게,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

정부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**탄소중립정책을 추진**하는 데에는
우리 경제와 기업이 이를 감당하고 오히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
특유의 경쟁력과 기술력 측면의 저력이 있다는 믿음도 작용하였습니다.

전기차 배터리는 **세계시장 점유율 1위**를 기록중이고,
전 세계 **수소 연료전지 발전량**의 40%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.
에너지저장장치(ESS) 역시 **대한민국이 세계시장 점유율 1위**이며,
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Top3에 오를 만큼
우수한 혁신역량을 지닌 국가가 **바로 대한민국**입니다.

2050 탄소중립의 길은 한 세대 30년을 내다보고 결정한 길이고
또한 **한 세대에 걸쳐 준비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제**입니다.
즉 우리 **국민 모두가 폭넓게 공감하고 꼼꼼하게 대비하고 착실하게 추진**해
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.

그 과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입니다.
탄소중립으로 향한 길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을
요청 드립니다.

정부는 지금부터 **'2050 탄소중립'이라는 북극성**을 좌표로
좌고우면 없이 그 대비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그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**소비자·기업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**하고,
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최대한 유지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붙임 2 **환경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**

※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,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장기 저탄소발전전략(LEDS)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.

파리협정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동 협정에 따라 **올해 연말**까지
'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'와 함께 2050년을 목표로 하는
미래비전 성격의 **'장기 저탄소발전전략'을 UN에 제출**하여야 합니다.

< 장기 저탄소발전전략(LEDS) 주요내용 >

먼저, '장기 저탄소발전전략'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'장기 저탄소 발전전략'의 비전으로 **2050년 탄소중립**을 **목표**로 설정하고,
이를 이행하기 위한 **부문별 전략**과 **방향성**을 제시하겠습니다.

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,
❶ **깨끗하게 생산된 전기·수소**의 **모든 부문 이용 확대**,
❷ 혁신적인 **에너지 효율 향상**,
❸ **탈탄소 미래기술 개발**과 **상용화** 촉진,
❹ **순환경제**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,
❺ 자연과 생태의 **탄소흡수 기능 강화**를 설정하였고,

경제,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
탄소가격 시그널 강화, 공정한 전환, 녹색금융, 기후기술 R&D 등
정책, 사회, 기술 전반에 걸친 **혁신 과제**를 포함하였습니다.

<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(NDC) 갱신 주요내용 >

다음은 **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갱신**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우선, **2017년 대비 24.4% 감축**을 우리나라의
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하였습니다.

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
37% 감축 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**절대량 방식으로 전환**한 것으로서,
감축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비중을 줄이고
국내 감축비중도 기존보다 **확대**하였습니다.

아울러,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,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하여 UN에 제출할 계획입니다.

< 마무리 >

마지막으로 **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계획**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.

범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나갈 **단계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**의 **명확한 방향성 제시**를 위해서는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.

이를 위해, 감축잠재량, 기술수준, 비용·편익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,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**복수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**를 **내년까지 수립**하도록 하겠습니다.

또한, **단계별, 부문별 감축경로**도 **함께 마련**하여 **진전된 2030 감축 목표를 설정**하고,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가속화하여 **우리 정부 내에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UN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**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붙임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브리핑 발표문

※ 초안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있으며, 실제 발언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

안녕하십니까?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.

<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의 역할 >

에너지 부문에 대해 추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에너지는 **탄소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**입니다. **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36%를 발전 부문**이 차지하고 있고, 산업, 수송, 건물 등에서 직접 소비되는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**국가 온실가스의 87%**가 에너지에서 비롯됩니다.

우리나라의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와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감안할 때 **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은 쉽지 않은 과제**입니다. 따라서 에너지 공급에서 전달, 소비에 이르기까지 **기존 에너지시스템의 대전환**이 필요합니다.

< 에너지 분야 4대 혁신 >

이를 위해 에너지 부문에서는 **공급, 계통, 산업, 제도 등 4대 분야에 걸쳐 과감한 혁신을 추진**해 나가겠습니다.

❶ 먼저, **공급혁신**입니다. 그린뉴딜을 통해 **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**하고, 인허가통합기구, 계획입지, 이익공유제 등 제도개선으로 **재생에너지의 수용성과 환경성**을 높이겠습니다. **석탄발전은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목표**로 CCUS 기술 개발과 함께, 자발적 감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습니다.

❷ 둘째 **계통혁신**입니다.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**전력망을 선제적으로 보강**하고 **백업설비도 확충**하겠습니다. 이와 함께 자가소비 활성화, 마을단위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등 **분산형 전원체계**도 확대할 것입니다.

❸ 셋째 **산업혁신**입니다. 기술개발, 세제·투자 지원 등을 통해 **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강화**하겠습니다. **수소경제를 조기 활성화**하고, 빅데이터 수요관리 등 **IT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** 창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

❹ 넷째 **제도혁신**입니다. **에너지시장 규제개혁**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. 아울러 **유연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**를 통해 전력소비를 더욱 효율화하겠습니다.

이러한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**안정적인 에너지수급은 필수적 전제조건**입니다.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**'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'을 수립**하고 **전력, 신재생 등 관련 계획도 순차적으로 정비**할 것입니다. 착실한 준비와 이행으로 **에너지 수급 안정 속에서 탄소중립을 추진**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< 대국민 소통 >

이제 우리 경제는 **'산업화', '정보화'에 이어 '탄소중립'이라는 새로운 도전**에 나서게 됩니다. **"멀리가려면 함께 가라"**는 말이 있습니다. **국민, 업계,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**을 통해 **탄소중립에 대한 공감대**를 형성하고,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차근차근 걸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붙임 4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

◇ **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**이 있는 경우, 아래 **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부서		담당과장	담당자
기재부	미래전략과	최재혁 과장 (044-215-4910)	박은정 서기관 (044-215-4911) 김민진 사무관 (044-215-4920)
	기후환경정책팀	류승수 팀장 (044-215-4970)	최형석 사무관 (044-215-4975)
환경부	기후전략과	오일영 과장 (044-201-6640)	고덕규 서기관 (044-201-6647)
산업부	온실가스감축팀	성시내 팀장 (044-203-5135)	김은하 사무관 (044-203-5137)
과기부	기후환경대응팀	한우진 팀장 (044-202-4511)	손효진 사무관 (044-202-4543)
국조실	기후변화대응과	전원혁 과장 (044-200-2890)	김민지 사무관 (044-200-2892)
국토부	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	정진훈 과장 (044-201-3258)	정기성 사무관 (044-201-3255)
중기부	정책총괄과	조경원 과장 (042-481-4537)	곽성원 사무관 (042-481-4504)
금융위	금융정책과	이동훈 과장 (02-2100-2830)	김수빈 사무관 (02-2100-2833)
외교부	기후변화외교과	최인택 팀장 (02-2100-7859)	조창연 서기관 (02-2100-7858)
해수부	해양환경정책과	강정구 과장 (044-200-5280)	김형원 사무관 (044-200-5285)
농식품부	농촌재생에너지팀	김지현 팀장 (044-201-2911)	김성만 사무관 (044-201-2918)
고용부	고용정책총괄과	편도인 과장 (044-202-7210)	박보현 사무관 (044-202-7212)
교육부	민주시민교육과	신두철 과장 (044-203-6642)	이종환 사무관 (044-203-6733)
산림청	산림정책과	하경수 과장 (042-481-4130)	민병산 사무관 (042-481-4199)